



CAR-T치료제 김리아, 건보 적용으로 환자 부담 낮아질 전망

- 1회 투약 비용이 4억원대인 노바티스의 CAR-T 치료제 김리아가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환자 부담액이 최대 598만원으로 낮아짐.
- 백혈병 치료제 김리아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를 받은 CAR-T 치료제. 이 치료제는 환자로부터 추출한 T세포 표면에 암세포의 특정 항원을 인지하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가 발현될 수 있도록 유전적으로 재조합 시킨 후 이 물질을 다시 환자에게 투약하는 약임. 따라서 암세포만을 공격하기 때문에 1회 투여만으로 획기적인 효과를 냄.
- 김리아는 작년 3월 첨단재생바이오법 1호 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아 정부의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은 CAR-T 센터에서 치료가 가능. 허가 병원은 삼성서울병원, 서울대학병원, 세브란스병원, 서울성모병원임. 여기서 세포 수집, 생체외 처리, 치료제 주입 등 과정이 비급여 항목으로 200~400만원을 부담, 이 또한 건보 적용되어 10만원 수준으로 낮아짐.
- 이번 건보적용으로 김리아 뿐만 아니라 CAR-T치료제를 투여하는 환자의 비용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며 이는 전반적인 CAR-T 치료제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.

김리아 주요내용

개발사	노바티스
복용 횟수	1회
약가	4억6,000만원
급여 적용 횟수	평생 1회
급여 적용 대상	- 25세 이하의 소아 및 젊은 성인 환자에서의 이식 후 재발
	또는 2차 재발 및 이후의 재발 또는 불응성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 치료
	- 두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인 성인의
	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



Compliance Notice

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
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나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
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..

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
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

